

‘최순실 블랙홀’에 멈춰 선 대선 시계

여 “누가 나와도 어렵다” 회의론... 유승민 강연 정치야, 文 조심 행보... 손학규 “대통령 모든 것 내려놔야”

‘최순실 게이트’로 여야 정치권에 대선 전선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집중되면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사라진 탓이다. 특히 여권 대선 주자들은 가뜰이나 야권 잠룡들보다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기반을 급격히 허무는 최악의 악재까지 터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근 ‘누가 나와도 당선 어려울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 속에서 판을 흔드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일해진다.

특히 비주류 주자들로서는 박 대통령을 떠받쳐온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당내 진박 주류세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강연 등의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특강을 하는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 참석한다. 유승민 의원도 최근까지 이어온 대학가 릴레이 강연을 당분간 지속한다. 내달 3일엔 전남대에서 ‘보수혁명·혁신경제·한국사회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야권=조기에 불이 붙는 듯했던 야권의 차기 대권경쟁이 단순간에 멈춘듯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주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쫓아가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파문이 지나가고 난 이후 다시 가열될 대선레이스를 의식하면서 내용을

쌓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힘을 실을지, 아니면 판도를 새롭게 짜는 쪽으로 작용할 지다.

일단 문 전 대표는 탄핵이나 하야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부자 몸조심’이란 지적도 있으나 자칫 ‘튀는 행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대통령에 하야를 요구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선명노선’을 걷고 있으나 대부분 야권 주자는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을 떠나 홀로 행보를 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관심사다. 정치권에는 손 전 대표가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마다 공교롭게도 대형사건이 터지며 상황이 꼬이는 ‘징크스’가 있다는 말이 있다. 2년 2개월 동안의 강진 토론회 생활을 끝내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지 나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게

헌’이라는 깜짝 선언을 한 데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메가톤급 파괴력으로 정국을 강타하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앞서 지난 2006년 10월9일 손 전 대표가 100일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던 날,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손 전 대표의 신선한 행보는 다른 뉴스에 묻혔다. 따라서 손 전 대표 측 내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선명한 행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다른 후보들과 달리 당적이 없어 독자적 행보를 하는데도 걸림돌이 없다.

한편, 손 전 대표는 30일 강진군 강진아트홀 2층 소극장에서 열린 ‘나의 국민심사 강진일기’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열기 앞서 ‘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각계가 참여하는 ‘비상사국회의’를 구성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先 수사 後 특검’ 박지원의 해안

여야 최순실 특검 논의 반대... 민주당 협상 철회 이끌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된 판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당장 특검 도입을 주장하자 ‘선(先) (감찰)수사, 후(後) 특검’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런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첫 협상을 했지만 상설특검(여당)과 별도특검(야당) 주장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됐다. 이어 다음날인 28일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의 3가지 선결 조건이 이뤄질 때까지 ‘특검 협상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先) (감찰)수사, 후(後) 특검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하겠느냐”라며 “만사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 중립거국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의당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특검에 대한 이 같은 판단은 선부론 특검 도입이 자칫 관련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국민과 야권이 갖고 있는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줄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세균 원내인 28일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의 3가지 선결 조건이 이뤄질 때까지 ‘특검 협상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先) (감찰)수사, 후(後) 특검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순실은?



민주당 최고위 간담회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정국 대응 회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국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 총리 임명해 외교권까지 위임해야”

국민의당 시국강연회... “외국 정부들 박대통령 인정 안해”

광주행사에 윤장현 시장 참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임명해 외교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희망 시국강연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국가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운 총리에 “권한을 모두 위임해야 한다”면서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교권까지도 총리와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책임 있는 대한민국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나흘 동안 부산·경남, 광주·전남을 다녀왔다. 민심은 미움을

넘어 믿음을 상실했다”며 “국민의 분노와 절망 앞에 더 이상의 길이 없다. 사태를 진정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28일과 29일 광주·전남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9일 해남 울돌목 명량대첩기념공원에서 열린 ‘나라기원행사’에 참석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살린 그 시절, 그 마음, 그 각오를 돌이켜 본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한 번 새 출발 하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약후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8일 광주 북구 향기교회에서 특별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도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윤 시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임 연기

안철수 ‘김병준 영입’ 진통... 11월 7일 선출

국민의당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김병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내부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외부 인사 영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초선과 중진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다 4선의 김동철 의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지난 26일 김 교수를 설득,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받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난 27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중진들이 절차

적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 혼란이 가중되자 지도부는 당초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던 계획을 내달 7일로 미뤘다.

국민의당 중진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사당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진심을 알아달라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교수 영입이 늦게 결정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내달 7일까지 하심타회한 논의를 거쳐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회 정상화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회동해 ‘최순실 사태’로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8일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

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국회 의정실에 모여 예산안을 비롯해 최근 ‘최순실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방식, 거국중립내각 구성, 개헌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번 회동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국회 파동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